

[논제] 백신 국가주의에 대한 토론 상황이다. 백신 국가주의는 백신의 확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국 우선주의 현상을 의미한다. 전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특정 국가가 개발한 백신을 전 세계가 공유해야 하는지, 개발한 국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사용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다.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문항 1

<다음> 중 하나의 주장을 택한 후, 아래의 <조건>에 따라 논하시오. (1,000자±100자, 60점)

< 다음 >

주장 1 : 백신 국가주의를 찬성한다.

주장 2 : 백신 국가주의를 반대한다.

< 조건 >

1. 제시문 (가) ~ (바) 가운데 세 개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것.
2. 조건 1에서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세 개를 활용하여 반론을 제기할 것.
3. 반론에서 제기된 논거들을 각각 재반박하여 자신이 선택한 주장을 옹호할 것.
4.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문항 2

제시문 (사)의 <자료 1>~<자료 4>를 활용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논하시오. (600자±60자, 40점)

< 조건 >

1. <자료 1> ~ <자료 4> 가운데 두 개를 활용하여, [문항 1]에서 자신이 선택한 주장을 정당화할 것.
2.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 제시문 >

(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은 1292년에 피렌체 시의회가 캄비오(A. Cambio)에게 설계를 맡겨 1296년에 공사가 시작되었다. 캄비오의 죽음과 흑사병의 유행으로 더디게 진행되어 1418년에서야 성당 건물이 완성되었지만, 내부 지지대가 없는 거대한 돔을 만들지 못해 성당 지붕은 열린 상태였다. 돔을 완성할 건축가를 공모했으나, 지원자 중에 최초 설계대로 돔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 건축가가 없었다. 브루넬레스키(F. Brunelleschi)는 지지대 없이 거대한 돔을 만들 수 있지만 다른 건축가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할 수 있어 그 방법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피렌체 의회는 대성당의 돔형 지붕에 대한 특허장을 그에게 발급하고 공사를 맡겼다. 특허장에는 특허 보호기간 3년 동안 아이디어를 도용하면 처벌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특허권이다. 그는 1436년에 지름 45미터의 돔을 완성했다. 이렇게 탄생한 성당은 오늘날까지 피렌체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근대 특허제도는 네덜란드와 영국으로 퍼졌다. 영국은 전매특허조례를 1623년에 제정하여 최초의 발명자에게 40년간 특허권을 인정함으로써 유럽 각국의 기술자를 끌어들이었다. 1791년에 프랑스 헌법은 발명자의 권리를 인권에 기초한 재산권으로 선언했고, 작품 공연 등 저작권에 대해서도 1793년 법으로 배타적 권리를 인정했다. 에디슨(T. Edison)은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물건은 발명품이 아니다.”라면서 자신의 발명에 대해 일일이 특허를 출원했다. 그는 1,000여 개의 특허를 따낸 덕분에 돈벌이를 따로 하지 않고도 발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 하나가 인류 문명의 역사를 새롭게 펼쳤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특허가 끌어낸 기술 혁신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쉽게 엿볼 수 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세계지리』 활용

(나) 인간이 자신만의 정부를 가지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권리만을 갖는 상태로 추락하자마자, 어떠한 권위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남겨져 있지 않고 또 어떠한 제도도 인권보장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권리를 갖지 못한 자가 겪게 되는 최초의 상실은 고향의 상실인데, 이는 이 세계 안에서 자신들을 위한 분명한 자리를 마련해주었던 사회적 조건 전체의 상실을 의미했다. 권리를 갖지 못한 자가 겪게 되는 두 번째 상실은 정부의 모든 보호를 상실하는 것이다. 권리를 갖지 못한 자의 파국은 그들의 삶, 자유, 행복 또는 법 앞에서의 평등을 추구할 권리와 의견의 자유를 박탈당했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공동체에도 속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곤경은 그들이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들이 억압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들을 억압조차하려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체 자체의 상실만으로도 인간은 인류에게서 축출될 수 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본질적 자질, 즉 인간적 품격을 상실하지 않고도 소위 인권이라는 모든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박탈은 의견을 중요시하고 행위를 효과 있게 해주는 세계 내에서 자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속하게 되는 공동체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행위할 권리와 의견을 가질 권리를 모조리 박탈당한 채 도덕적·법적 인격의 절멸 상태뿐만 아니라 개성의 파괴까지 강요받는다. 어떤 공동체에 우연히 속했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원천에서부터 시작하는 인간의 힘인 자발성과 개성의 제거, 즉 사람을 살아있는 시체로 변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시민의 권리인 자유와 정의를 박탈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위험하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활용

(다) 비행기로 여행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안내는 기내 안전수칙에 관한 설명이다. 그 중에는 산소마스크 착용에 관한 안내가 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비상시에는 어린이와 같은 노약자보다 성인이 먼저 산소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는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에게 먼저 산소마스크를 착용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실제로 기내 안전수칙으로는 옳바르지 않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비행기 이상으로 갑자기 산소마스크가 떨어지면 어린아이부터 챙겨야 할 것 같은 심정적 조바심을 이겨내기 어렵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난이 닥쳤을 경우 본능적 충동보다 이성적 판단으로 사고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민간 여객기는 고도 3만 5천에서 4만 피트 내외에서 비행한다. 이 높이의 기압은 매우 낮지만 항공기 안은 여압조절 장치를 통해 고도 8천 피트 정도의 기압을 유지한다. 그런데 만약 그 고도에서 갑자기 기내 압력에 문제가 생겨 4만 피트 상공의 기압에 노출되면 사람은 30초 만에 정신을 잃게 된다. 압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매우 급격하게 되면 불과 10초만에 정신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위기가 악화되면 통제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에게 먼저 산소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하는 것이다. 만약 어린이를 먼저 도와주려다 성인이 정신을 잃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이 부족한 아이를 먼저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겠지만, 급한 상황일수록 자신의 안전을 먼저 확보한 후 대처해야 효율적인 위기관리가 가능하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화법과 작문』 활용

(라) 미국의 스포츠 구단 가운데는 인디언 부족을 팀의 명칭이나 마스코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미식축구 구단인 ‘워싱턴 레드스킨스’(Washington Redskins)나 프로야구 구단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Cleveland Indians)도 인디언 부족의 상징을 상표로 쓰고 있다. 그러나 레드스킨이라는 용어는 흑인을 의미하는 ‘블랙스킨’(black skin)과 마찬가지로 인디언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에 1992년 한 인디언 단체가 상표권위원회에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상표 등록 취소를 신청하였다. 왜냐하면 이 상표는 사람, 단체, 신앙, 국가 등을 비방하거나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규정을 둔 연방 상표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상표권위원회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상표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구단 측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소심까지 가게 되었다. 심리 과정에서 인디언들은 레드스킨이라는 단어가 그동안 인디언을 얼마나 경멸적으로 묘사했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구단은 자신들이 등록한 ‘레드스킨스’ 상표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무렵에 인디언들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단은 상표의 계속적인 사용으로 인해 사용 권리를 갖게 되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2009년 미국 대법원은 상표권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구단 측과 축구협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비록 상표권 소송에서는 졌지만 실제로 인디언과 관련된 명칭이 부정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실제로 미군은 알카에다 조직의 지도자였던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것을 ‘제로니모 교전 중 사망’이라는 암호로 정부에 보고하였다. 제로니모는 미국의 공격에 맞서 끝까지 저항한 아파치족의 용맹한 장수였는데, 그 이름을 미국의 적수에게 암호명으로 붙여준 것이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활용

(마) 근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자유주의적 성찰에 초점을 두어왔다. 신분이나 사회적 조건에 관계 없이 모든 인간의 평등한 천부적 권리는 근대 사상과 정치제도의 근간이 되어왔다. 1789년 프랑스 국민회의에서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은 근대적인 인권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또 주목할 것은 시민을 정치적 주체이자 권리의 주체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이라는 개념 역

시 전근대적인 신분 사회와 달리 한 국가 속에서 모든 인간의 평등한 권리를 전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근대 이후 국가의 성격도 인간의 자연적 권리 특히 시민의 권리 보장을 존립 근거로 삼는 국민국가로 변화하였다.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국민의 권리는 단지 자유와 평등의 권리만이 아니라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복지와 안전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현대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정치적, 생존적 권리는 근대 국가의 성립 및 인권선언과 동시에 제기되었다. 미국의 경우 일찍이 1776년 버지니아주 권리장전에서 “정부의 목적은 국민과 국가의 복지, 보호 그리고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재산을 획득하고 소유하며, 행복과 안전이 확보된 생활과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정부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모든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은 바로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이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의무는 단순히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이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버지니아주 권리장전에서는 정부가 내외의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행복, 안전을 보장하지 않거나 해칠 경우, 국민에게 그 정부를 변경하거나 부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부당하고 무능한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권은 인권의 물론 시민권의 보장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고등학교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활용

(바) 한 무리의 사냥꾼들이 사슴을 잡기 위해 사냥을 시작한다. 사슴이 있을 법한 산을 둘러싸고 사슴을 몰아 조금씩 올라가면서 정상에서 잡기로 약속한다. 사슴을 잡으면 모든 사냥꾼들이 고기를 골고루 나누어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사슴사냥이 무르익을 즈음 한 사냥꾼의 옆으로 토끼가 지나간다. 순간, 사냥꾼은 망설인다. 그 사냥꾼은 토끼를 잡아 배불리 먹을 수도 있지만, 그가 토끼를 잡으려는 사이에 사슴은 그의 자리가 빈틈을 이용해 달아날 수도 있다. 사냥꾼은 생각한다. 다른 사냥꾼도 토끼를 보면 사슴사냥의 대열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의심을 버리지 못한다. 결국 그 사냥꾼은 자신의 옆으로 지나가는 토끼를 잡기 위해 정상에서 사슴을 잡자는 약속을 배반하게 되고, 사슴사냥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루소의 ‘사슴사냥 우화’는 한 사회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상호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 준다. 그러나 신뢰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도덕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문화적 가치나 제도와 같이 장기간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의 일종이다. 자연 상태에서의 결정은 대부분 이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상호 이기적인 선택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고려하고 신뢰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즉 상대방이 치면 나도 친다는 ‘맞대응(tit-for-tat)’ 방식이 야기하는 불이익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개인적 이기주의를 절제하거나 통제할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결과 사회적 신뢰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 현재와 같이 인류의 안정된 삶을 지탱해 주는 국가의 제도, 규범이나 국제연합 및 국제규범 등은 바로 인류가 이러한 교훈을 통해 만들어 온 제도이다.

고등학교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활용

(사) <자료 1>~<자료 4>는 백신 국가주의의 찬성 혹은 반대의 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다.

<자료 1> 지적재산권 보호와 혁신

[자료 1-1]은 2020년에 전 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IPI(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Index) 지수’는 각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적, 정치적 환경을 측정하는 지표이고, ‘GII(Global

Innovation Index) 지수'는 각국의 혁신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혁신을 장려하는 법제도 환경과 그로 인한 결과물을 합산하여 측정한다.

[자료 1-1] 각 지수의 분위별 국가 수(단위: 개)

IIPI 지수	GII 지수				
	1분위 (상위 20%)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하위 20%)
1분위(상위 20%)	36	3	1	0	0
2분위	3	35	2	0	0
3분위	1	2	33	3	1
4분위	0	0	3	33	4
5분위(하위 20%)	0	0	1	4	35

<자료 2> 백신 접종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성장 전망

[자료 2-1]에서 시나리오 1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을 경우, 시나리오 2와 3은 선진국이 백신을 개발한 후 단계별로 다른 국가들에게 백신을 공유하여 접종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자료 2-2]는 각 시나리오에 따른 국가집단별 전년 대비 실질 GDP 성장률 예상치이다.

[자료 2-1] 백신 접종 시나리오

O = 백신 접종	X = 백신 없음			
	선진국	개발도상국	최빈국	
시나리오 1	X	X	X	
시나리오 2	O	X	X	
시나리오 3	O	O	O	

[자료 2-2] 백신 접종 시나리오에 따른 실질 GDP 성장률 예상치

	선진국 평균	개발도상국 평균	최빈국 평균
시나리오 1	-8.6%	-7.8%	-9.9%
시나리오 2	-3.1%	-7.3%	-9.1%
시나리오 3	-1.3%	-1.9%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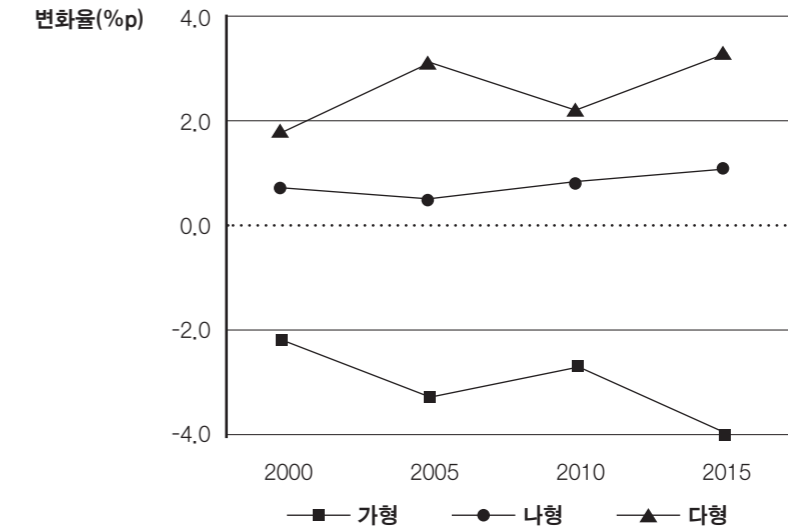
<자료 3> 생산 유형별 생산 비중의 변화

[자료 3-1]은 세계 각국의 생산 활동을 국내 소비형(가형), 수출형(나형), 국제 분업형(다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자료 3-2]는 각 생산 유형이 전 세계 총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연도별 변화율(%p)을 나타낸 것이다.

[자료 3-1] 주요 생산 유형별 특징

생산 유형	원자재 수입	중간재 수입	생산품 형태	생산품의 수출
국내 소비형(가형)	X	X	최종재	X
수출형(나형)	O	X	최종재	O
국제 분업형(다형)	X	O	중간재	O

[자료 3-2] 생산 유형별 생산 비중의 변화



<자료 4> 강대국의 딜레마

강대국 1, 2가 핵무기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다. 두 강대국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 무기감축협약을 체결하는 안(협력)과 핵무기 경쟁에 돌입하는 안(비협력)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조건 1: 상대국이 협력 또는 비협력을 선택할 확률은 각각 50%로 예상한다.

조건 2: 두 강대국은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조건 3: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보복할 수 없다.

[자료 4-1] 강대국들의 선택에 따른 핵무기 보유 예상치

강대국 1	강대국 2	
	무기감축협약 체결(협력)	핵무기 경쟁(비협력)
무기감축협약 체결(협력)	(3개, 3개)	(0개, 10개)
핵무기 경쟁(비협력)	(10개, 0개)	(8개, 8개)

* 괄호 안의 숫자는 선택을 통해 예상되는 강대국 1과 강대국 2의 핵무기 보유량을 순서대로 표시한 것임.